

세계주보

친교로 하나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2023. 01. 01. (가해) 제2355호



3대리구 성주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bernard - 2022

제 1 독 서 민수 6,22-2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 독 서 갈라 4,4-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



사수성당 주임 | 박종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오늘은 새로운 해의 시작이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사람이신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천주의 성모)라는 호칭이 가능한 것은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는 사람의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이 되고, 지상의 것이 천상의 것이 됩니다.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으로 채움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그 첫 번째 수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는 예수님의 벗이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형제, 자매, 벗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청할 수조차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느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모님은 사람의 어머니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존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궤문**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1테살 5,1-2). 이 말씀으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공동체를 변함없이 지키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을 굳건하게 뿌리박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변 세상과 역사의 사건들에 고정하도록 그 공동체를 격려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부분조차 뒤흔들었고 취약함의 여러 형태를 드러낸 듯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물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류애임을 깨달았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끝났다는 희망을 감히 품었던 그 순간에도 끔찍한 새 재앙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죄한 희생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이들만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이차적 영향의 고통을 겪는 이들 사이에서도 모든 이에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찾았지만, 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들이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개별 문제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빈곤과 죽음을 초래하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는 활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에 그리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 시급히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면서, 불평등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모든 이를 위한 식량과 품위 있는 노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과 우리 사회들이 내버린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힘입은 이타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관대하게 응답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교좌 범어대성당 수석 오르가니스트·드망즈홀 관장 | 박수원 F. 하비에르

파이프 오르간은 관에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 내어 이를 건반으로 연주하는 악기이다. 그 소리가 장엄하고 워낙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천사들의 합창을 상징하는 악기로 미사에 쓰였다. 초등학교 때에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어머니께 여쭙었더니 자세한 설명 대신에 바흐의 오르간 음악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선물로 주셨다.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으면서 그 궁금함은 동경이 되었고 마침내 먼발치에서 음악을 짝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상경대 학생으로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도 몰래 음악을 탐했다. 교구청 내 가톨릭음악원을 기웃거렸고, 관련 학과에 편입하여 오르간도 배우면서 미친 듯이 음악 주변을 맴돌았다. 이십 대 중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말이 돌잔치마저 앞당겨 치른 후 마침내 무엇에 홀린 듯 유학을 떠났다. 오르간 명인으로 손꼽혔던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의 장 브와이에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파리에 도착해서 첫 한 달 동안은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텅 빈 방에 호젓이 앉아 가져갔던 성경을 재미있게 읽었다. 당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폭풍이 밤새 창문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몰입했다. ‘나를 지어내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큰 맥락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9개월간 준비한 후 입학시험을 보러 리옹에 내려갔다. 한 달 간격을 두고 세 번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 연령 기준상 지원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다. 떨어지면 이제 음악은 그만둘 것이라 마음먹으며 저녁 미사에 참석했다. 붉은 제의를 입은 신부님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임을 알려주셨다. 사뭇 비장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크고 멋진 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어 하느님 찬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기도했다.

다행히 합격했고 몇 년 후 그때 그 기도대로 리옹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어 4년간 활동했다. 나중에 장 브와이에 선생님이 골수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즈음하여 쓸쓸한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셨다. 돈도 없고 연주할 악기도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든 작게 일귀 나갈 생각이라 말씀드렸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며 격려해 주셨다.

2013년, 막내아들이 태어나던 해, 주교좌 범어대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프로젝트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부터 내 삶의 목표는 좀 더 분명해진 것 같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찬미의 음악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에는 이 꿈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잘 살아야겠다. 꿈이 기도가 되면 이루어진다. **필문**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3년

전대사와 간도 이민에 관한 회람

6월 11일 수요일

주교 성성식 2주년 기념일이다. 근방의 모든 선교사들이 나와 함께 기념일을 축하하러 왔다. 나는 로베르 신부와 소세 신부의 보좌를 받으며 장엄미사를 거행했다. 저녁에는 학생들과 가톨릭청년회의 좋은 축제가 있었다.

6월 20일 금요일

주교관의 지하실 건축이 끝나고, 1층이 시작되었다.

6월 23일 월요일

건축을 보러 오도록 청했던 프와넬 신부가 도착했다. 그는 중국과 만주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오사카 교구의 선교사인 그리보(Grivaud) 신부와 동행했다. 나는 전대사(全大赦)를 공포하고, <교구지도서>에서 몇 가지 점을 수정하는 제15호 회람을 발송했다. 전대사에 관한 것과 간도(間島) 이민에 관한 두 통의 서한이 회람에 첨부되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가 되는 이 이주는 많은 곳에서 정말 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는 얼마 전에 거제도(巨濟島)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판독안됨]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로 의견이 갈라진 주민들은 문제를 주교에게 맡기기로 했었다. 나는 서간도(西間島) 부근 신부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단순히 상황만을 설명했다. 그들은 고향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는데, 얼마 후 이민 간 그들의 이웃 외교인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게 감사했었다.

6월 25일 수요일

그리보 신부가 투르뇌 신부와 함께 가실공소로 갔다.

6월 26일 목요일

그리보 신부가 가실에서 돌아와 일본으로 떠났다.

6월 27일 금요일

프와넬 신부가 돌아왔다.

6월 28일 토요일

베르몽 신부는 시잘레 신부가 휴가를 이용하여 되재로 갔다고 알려주었다.

대구주보 친교의 해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개인 및 단체 활동을 통해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체험했던
하느님과 이웃, 피조물 등 다양한 친교를 실천한 사례

형식 및 분량 | 수필 형식의 글로 분량은 A4 기준 한글 12포인트 1페이지(분량 엄수)

기간 및 방법 |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길 112 천주교대구대교구

교육원 가동 3층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

※ 당선작은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2023 대구주보 개편안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친교로 하나되어라는
교구의 사목방향에 맞춰
2023년도 대구주보의 내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1면	교구 내 본당 소개 - 그림 서원만 베르나르도	2면	주일의 말씀 - 신부님들의 강론	
	3면		코이노니아 - 이재근 신부의 「하느님과 함께」 - 교구 사회복지국의 「이웃과 함께」 - 수도자들의 「피조물과 함께」	4면
	5면	서로가 서로에게 - 친교의 현장에서	바티칸 소식 - 교황님 말씀	
	6면	믿음의 길 - 드망즈 주교의 일기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 - 친교 실천 사례 공모 당선작	
			문화와 영성 -신간, 전시 등 문화 소식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가정 안에서 생태 활동(절전, 절수, 절약...)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2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7일(토) 10:00 월성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1월 2일(월) 11:00 성모당	성체조배회 회원을 위한 미사	1월 7일(토) 10:00 지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월 7일(토) 11:00 앞산밀북카페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8(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3~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일자: 1.27(금)~29(일)

대상: 몸과 마음이 건강한 35세 이하 남성

문의: 성소 담당신부, (010)6608-3217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전화 상담 후 결정

대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

문의: 정 가브리엘 수사, (010)2896-3501

이 스테파노 신부, (010)9744-2974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svdb.creatorlink.net 참조

문의: (0507)1306-1505

성바오로팔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일시: 1.13(금) 15:00~9(일) 15:00

장소: 성바오로팔수도회 여주사도의모후집

대상: 33세 이하 미혼 여성(피정비: 3만원)

신청: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예수회 영신수련 23년도 3박4일 일정 안내

일정: 3.2(목)~5(일) / 8.24(목)~27(일)

9.7(목)~10(일)

장소: 순천 예수회 영성센터

문의: (010)8587-7654

<https://favre.jesuit.kr>

2023년 성모술술마를 무료 치유 대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

일자: 1.13~15/ 1.27~29 / 2.10~12

3.10~12 / 4.7~9 금~일 2박3일

문의: 성모술술마을, (010)3209-3955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자: 1.13~15 / 1.28~30 / 2.3~5

2.9~11 / 2.13~15 / 2.18~20

문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눈꽃산행: 1.27~29 / 2.4~6

2.12~14 / 2.18~21 / 2.24~26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구 외 | 기타 알림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1월 개강, 각 6주)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 - 영성적 접근

옥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신청: <http://center.jesuits.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도쿄,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인천, 양양공항 출발 / 송진욱 신부

99만원부터

문의: (010)3645-9028

2023학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10(금)까지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 / ci.catholic.ac.kr

각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각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 최익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개원 38년
달성 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살피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민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CaNa 가나혼인잔치
27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666-1077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mjms.co.kr 이경용(요셉)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보록(바오로) 신부
1922년 1월 2일
- 장순도(바르나바) 신부
1971년 1월 5일
- 하야사카(이레네오) 주교
1946년 1월 7일
- 전석재(이나시오) 몬시뇰
1988년 1월 7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1.6(금) 10:00~12: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성경 및 헌책 기증 안내

보내실 곳: 대구 중구 서성로 10
계산문화회관 302호 교정사무부
(학습지 및 아동도서 제외) / 착불가능
문의: 636-8916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이론화, 서양화, 성가반주오르간,
제대꽃꽂이, 연필초상화, 칼림바,

우쿨렐레, 캘리그래피, 프랑스자수,
장구, 사범꽃꽂이, 정리수납전문가,
신앙여정, 난타 / 신청: 254-6115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직원 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986-2077 / 986-2078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5-2141 / 616-2141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길 108
내용: 1인1실 사용/공동기도 생활
대상: 65세이상 생활 가능한 기초수급자
문의: (054)954-1824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13 베트남(대구출발) 139만원
3.4 발칸반도(메주고레) 12일 395만원
3.8 이스라엘 9일 445만원
3.14 성모발현지 12일 415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가톨릭성서모임(영원한도움) 창세기 특강

일시: 1.13(금), 14(토) 10:00~15: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강의실
강사: 송재준 마르코 신부님
회비: 4만원(식사제공) / 1.10(화) 마감
문의: 담당 수녀, (010)9610-5366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비대면 심리독서모임

심리적 자기이해·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2월 매주 월, 토 09:00~12:00 (각8명)
주최: 베네심리상담센터(개인상담가능)
신청: 이데레사수녀, (010)7241-2236

한국여기회 주란 사순절 성지순례

일정: 3.21(화)~24(금)
장소: 나가사키와 하오도
금액: 약 150 만원
신청: 한국여기회, 622-19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로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산부인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

건강검진센터 | 응급실 24시운영
진료 예약 및 문의 | ☎ 053) 320-2500

윤영희 성명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도앤김연내과

혈액투석 주·야간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차차장안비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코리아알트만
40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철,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경(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